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Ⅰ): 동남 연해지역

1. 개요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연해지역의 지역경제가 다극화¹⁾되면서, 최근 동부 연해지역을 비롯해, 중·서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역별 발전 정책이 발표되거나 계획되고 있음(표1, 그림1 참조).
-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동남 연해지역의 최근 변화와 전략을 정리함.

2. 동남 연해지역의 최근 변화와 전략

가. 상하이(上海)

-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무원은 “상하이의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의 신속한 발전 및 국제금융센터와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함.

1)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1979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과 1988년 하이난(海南) 총 5개 경제특구를 건설, 1984년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베이하이(北海), 잔장(湛江), 광저우(广州), 푸저우(福州), 닝보(宁波), 난통(南通), 련완강(连云港), 칭다오(青岛),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台), 따론펬(大连), 톈황다오(秦皇岛) 총 14개 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확정, 1985년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민난삼각지역(闽南三角地区), 랴오둥반도(辽东半岛), 산둥반도(山东半岛), 환보하이지역(环渤海地区) 등 연해경제개방구(经济开放区)를 건설함. 중국의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모두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함.

<표 1> 최근 발표·계획된 중국의 지역발전 정책

지 역		정 책	비 고
동남 연해 지역	상하이 (上海)	상하이의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의 신속한 발전 및 국제금융센터와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 ²⁾	국무원 발표 (2009.4.29)
		난후이구의 제도를 취소, 그 행정구역을 푸둥 신구에 합병하는 요청 ³⁾	국무원 비준 (2009.5.8)
	푸젠 (福建)	푸젠성 하이시아시안 경제구의 빠른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 ⁴⁾	국무원 발표 (2009.5.14)
	선전 (深圳)	선전의 종합적 체제개혁 시범실시를 위한 종합 방안 ⁵⁾	국무원 비준 (2009.5.26)
	장쑤 (江苏)	장쑤 연해지역 발전 계획 ⁶⁾	국무원 비준 (2009.6.10)
	광둥 (广东)	주장삼각주지역 개발 발전 계획 개요 ⁷⁾ 개요의 이행에 관한 결정 ⁸⁾	광둥성 발표 (2009.1.8) (2009.4.12)
형찬다오 종합 발전 계획 ⁹⁾		국무원 비준 (2009.6.24)	
동북 연해 지역	랴오닝 (辽宁)	랴오닝 연해경제지역 발전 계획 ¹⁰⁾	국무원 비준 (2009.7.1)
	산둥 (山东)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 발전 계획 ¹¹⁾¹²⁾	산둥성 발표 (2008.3)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조성에 관한 지도 의견 ¹³⁾	국무원 심사예정
중· 서부 지역	안후이 (安徽)	완장 도시지역 일대 산업 이전 시범구 ¹⁴⁾	국무원 비준 (2009.6.16)
	산시·간쑤 (陕西·甘肃)	국무원 관중-텐쉐이 경제구 발전 계획 ¹⁵⁾	국무원 발표 (2009.6.25)
	쓰촨 (四川)	청두시 통합 도농 종합적인 체제개혁 시범실시의 총체적인 방안 ¹⁶⁾	국무원 비준 (2009.5.21)
		“청위경제구 지역 계획 ¹⁷⁾ ”의 의견을 구하는 좌담회 개최 (2009.7.22)	국무원 심사예정
	장시 (江西)	환포양호 생태경제구 계획 방안 ¹⁸⁾	국무원 심사예정

2) 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的意见

3) 关于撤销南汇区建制将原南汇区行政区域划入浦东新区的请示

4) 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区的若干意见

5) 深圳综合配套改革试验总体方案

6) 江苏沿海地区发展规划

7) 珠江三角洲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2008—2020年>

8) 关于贯彻实施《珠江三角洲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2008—2020年>》的决定

9) 横琴岛总体发展规划

10) 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11) 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发展规划

12)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계획 조사연구팀이 구성되어 황허삼각주지역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2009.3.25). 조사연구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등 25개 부문 총 78인으로 구성됨. 조사연구실시의 주 목적은 2008년 작성된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상향

[illegible]

- 조정하여 2009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기 위해서임(中国经济时报, 2009.4.15).

- 3 ●●

- 금융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이에 소재한 합자증권회사와 합자기금회사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관례에 부합한 세수·신용·감독관리 등 법률법규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발전 환경을 조성
 - 국제해운센터 건설의 총체적 목표는 △2020년까지 해운자원 집중, △건전한 해운서비스 기능, △우수한 해운 시장 환경, △고효율의 현대 물류서비스, △글로벌 해운자원배분 능력 등을 갖춘 국제해운센터 건설임.
 - 다양한 운송방식을 일체화하여 서비스가 우수하고 제 기능을 갖춘 현대해운서비스시스템과 현대국제해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해운자원 통합능력을 강화하여 종합경쟁력과 서비스능력을 제고
- 상하이시위원회는 상하이 ‘두개 센터(两个中心)’ 건설공작회의(5.11)에서 푸둥신구 개혁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렝반즈(冷班子)”라는 조사연구팀을 구성함.
- 조사연구팀의 팀원은 모두 6명¹⁹⁾으로 상하이시정부가 선발
 - 렝반즈는 주로 조세, 감독관리, 신용,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외국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임.
- 국무원은 난후이구(南汇區)와 푸둥신구(浦东新区)를 싼푸둥(新浦东)으로 합병하여 ‘두 개 센터’를 건설할 방침임.
- 현재 국제금융센터의 핵심 지역인 루자주이 금융성(陆家嘴金融城)과 국제해운센터의 핵심 지역인인 양산 선웨이항(洋山深水港)은 각각 푸둥 신구와 난후이구에 위치하고 있어 푸둥 신구와 난후이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통합되면 ‘두 개 센터’ 건설 목적이 실현이 용

19) 6인은 상하이 정협 부위원장인 주샤오밍(朱晓明)과 왕신쿠이(王新奎), 전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장잉스(蒋应时), 전 푸둥신구위원회 부서기 장야오룬(张耀伦), 상하이 위원회연구실 주임 왕잔(王战), 상하이시 정부발전연구센터 주임 췌우롄화(周振华)이며, 모두 과거 “상하이와 푸둥 장기 발전계획”에 참여한 적이 있음.

이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푸단(复旦)대학 도시·지역 연구중심의 왕진(翁瑾)은 푸동의 발전 모델은 토지를 임대하고 얻은 수익으로 기초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우대정책을 결합시켜 산업자본을 유치, 경제성장을 가져 온 모델임을 감안하면 토지자원 획득이 푸동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다고 언급.
- 원래 푸동신구의 토지면적은 533km²이었지만, 현재 개발 가능한 토지는 약 10km²에 불과함.

나. 선전(深圳)

- “선전의 종합적 체제개혁 시범실시를 위한 종합 방안(이하 ‘종개방안’)”은 기능면에서 선전과 홍콩이 상호보완을 강화하여 국제대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글로벌 성격의 물류센터, 무역센터, 혁신센터, 국제 문화 혁신 산업센터 등 4대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임.
- 선전시위원회 부비서장 멩징항(蒙敬杭)은 원래 초고에서는 5대 센터가 논의되었으나 홍콩이 글로벌금융센터에 대하여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이를 제외하였다고 밝힘.
- 선전시 상무위원회 상무부시장 쉬친(许勤)은 금융, 항구·공항, 비즈니스, 문화창업산업, 사회영역(과학·교육·보건 등), 기초인프라 건설 등에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 ‘종개방안’에 따라, 선전은 경제특구의 지역 범위를 선전 전 지역으로 확장하여 일시양법(一市兩法)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 현재 선전시의 전체 토지면적은 1,954km²이며, 이 중 경제특구의 면적은 396km²으로 한 도시에 특구지역과 비특구지역의 2가지 체제(兩法)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특구 면적이 협소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제개발용지가 부족하고, 非특구지역의 건설 및 관리 수준이 특구보다 낙후되어 결국 특구 및 非특구지역의 발전격차가 심하여 선전의 전체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 선전사회과학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양리쑤(杨立勋) 역시 발전공간의 제약 및 특구·非특구지역의 현저한 발전차이를 감안하면, 특구의 확장은 특구의 전체적인 기능 강화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힘.
- 선전시는 5년 전 실시하지 못했던 행정권삼분(行政权三分) 개혁을 재개하고, 특히 행정부문의 개혁을 강화할 방침임²⁰⁾.
- 선전이 진행하는 행정권삼분이란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의 행정권 상호독립, 상호제약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결정권, 행정권, 감독권의 삼분을 뜻하며, 목적은 과거 부처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선전시는 통제형정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관리체제 및 법제 등의 개혁을 특히 강화할 방침임.
 - 선전시위원회 상무위원·상무부시장 쉬친(许勤)은 ‘종개방안’의 주된 개혁 대상은 행정관리시스템,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 자주혁신 시스템, 선전-홍콩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과 지역협력,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도시 건설 등이며, 이 중 행정관리시스템 개혁이 제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다. 광둥(广东)

- 광둥성 정부는 2009년 1월과 4월 각각 “주장삼각주지역 개발 발전 계획 개요”와 “개요의 이행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함.

20) 2003년 선전은 행정권삼분 체제에 관한 탐색을 한 차례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일부 대중매체와 사회여론이 행정권삼분을 삼권분립으로 오해하여 성공하지 못함.

□ 광동사회과학원 과학연구처 처장 펑펑(彭澎)은 주장삼각주지역의 지역경제의 질적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함.

- 주장삼각주지역 △2008년 GDP 2조 9,7486억 위안 달성, △2009년 GDP는 약 3조 1,500억 위안, 1인당 지역 GDP가 65,200 위안, 도시화 수준이 80.1%에 달할 것으로 예측, △2012년이 되면 GDP 4조 위안, 1인당 GDP 80,000위안이며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일체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지표계획에 따라 2020년이 되면 주장삼각주지역 GDP는 약 7조 2,500억 위안, 1인당 GDP는 약 135,000위안에 도달하여 현재의 대만 수준을 초과하여 중등수입수준~고수입 국가의 수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²¹⁾

- 광동성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소장 류핀안(刘品安)은 이제는 광동이 단순히 경제총량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문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함.

□ 3대 경제권을 일체화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

- 광동성 위원회 서기 왕양(汪洋)은 ‘결정’이 광동성이 주장삼각주지역 경제사회 일체화를 추진하여 도시권 전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함.

- 광저우와 푸산의 동성화(同城化)²²⁾를 시범으로 광푸썬오 (广州, 佛山, 肇庆), 선관후이(深圳, 东莞, 惠州), 주중장 (珠海, 中山, 江门) 3대 경제권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사회일체화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함.

21) 1998년 주장삼각주지역을 포함한 광동의 GDP는 싱가포르를 초과하였고 2003년과 2007년은 각각 홍콩과 대만을 초과, 현재 주장삼각주지역 GDP에서 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79.7%에서 83.32%로 상승하였음.

22) 동성화란 도시화와 도시경제일체화의 새로운 형식으로 한 도시와 다른 도시 또는 여러 근접한 도시가 경제, 사회, 자연생태 환경 등 방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는 동일화와 규모 확장이 아니라 영향력과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도록 하여 효율이 높은 경계를 형성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임. 동성화발전 실현은 행정구역과 경제구역의 모순과 마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장벽을 제거하며 공동의 시장을 확장하고 자원소모를 줄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의미함.

- 광둥에서 처음으로 3대 경제권개념을 정식으로 발언, 이는 주장삼각주가 과거 9개 도시간의 경쟁에서 3대 경제권간의 경쟁으로 변하기 시작함을 의미
- 왕양은 일체화는 동등화나 동질화가 아님을 강조, 일체화의 관건은 행정구역의 장벽을 파괴하고 주장삼각주에서 경제와 사회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으로 일체화는 시장규율과 도시화 규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함.
-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형친다오²³⁾ 종합 발전 계획”을 통과시켜 형친다오 발전의 전략의의, 기능정립, 산업발전 등 지도원칙을 확정함.
- 회의에서 형친다오를 주하이(珠海) 경제특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항구설치와 통관제도에 대하여 분선관리(分线管理)²⁴⁾를 실시하기로 결정
- 광둥성 계획원 도시발전연구 센터 송진송(宋劲松) 주임은 분선관리로 인해 많은 외자 기업이 경제특구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비즈니스 서비스, 여행레저, 과학교육·연구개발과 하이테크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생태환경보호 강화, 금융혁신 지원, 한층 개방된 산업과 정보화 정책 등을 실시하기로 함.
- 형친다오의 개발은 주하이가 하이테크와 현대 서비스산업 등에서 영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함.
- 중국 지역경제학회 부회장 천동성(陈栋生)은 형친다오의 개발은 2008년 말 통과된 "주장삼각주지역 개발 발전 계획 개요"의 구체적인 실시로, 주하이의 발전공간을 확대함은 물론 주하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시켰다고 평가함.

23) 형친다오는 주하이시의 146개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86km²로 마카오 면적의 3배이며, 마카오 공항에서 3km, 주하이 공항에서 약 8km, 홍콩에서 41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2008년 말, 섬 내 인구는 7,585명이며 그 중 상주인구가 4,203명임.

24) 분선은 1선 해관과 2선 해관으로 구분됨. 1선 해관은 출입국 해관, 2선 해관은 경제특구와 내륙 간 설치된 해관으로 선전의 경우 1선 해관으로 루어후(罗湖), 원진두(文锦渡), 샤토후자오(沙头角) 항구 등의 해관이 있으며, 2선 해관으로 난터우(南头)와 부지(布吉) 해관 등이 있음.

□ 국무원은 마카오의 공립대학인 마카오대학이 형친다오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

- 제1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2009.6.22~27)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형친다오 마카오대학의 캠퍼스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형친에 있는 마카오대학이 시작되는 날을 기점으로 임대기한까지 캠퍼스에 한하여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할 수 있으며, 형친에 있는 마카오대학 캠퍼스와 형친다오의 기타 지역은 분리하여 관리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고 밝힘.
- 형친다오 마카오대학 부지의 토지사용권은 임대방식이며, 임대기한은 이 학교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049년 12월 19일까지이며,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장이 가능함.

라. 푸젠(福建)

- “푸젠성 하이시아시안 경제구의 빠른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에서는 양안(两岸: 중국과 대만)의 산업협력, 문화, 교육, 관광 등 방면을 강화하여 하이시아시안 경제개발구(海峡西岸经济区)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함.
- 대만산업의 이전을 받아들이고, 중국이 정한 외상투자 금지항목 및 국가안전에 민감한 투자항목을 제외한 모든 투자를 허가하여 양안의 경제무역협력을 적극 추진
- 대만 투자에 대한 심사 비준 과정을 간소화하여 양안간 무역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만 서비스 산업의 중국 시장 진입 등을 시범 시행할 계획
- 양안의 금융 감독관리 협력 추진, 중국과 대만합자의 하이시아투자기금(海峡投资基金) 설립 지원, 중국과 대만화폐의 환전범위 확대, 중국과 대만의 결제통화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함.

- 대만자본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푸젠(福建)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푸젠 금융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승인
- 지역과 항구 연동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관특수감독지역(海关特殊监管区域)²⁵⁾을 기초로 하여 푸젠 도서지역에 양안협력의 해관특수감독관리구 설립을 모색하는 등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
- 이외에 ‘의견’에서는 샤먼·푸저우대만상인투자구(厦门福州台商投资区)의 확대, 대만과의 원활한 문화 활동을 위한 하이시아양안문화산업원(海峡两岸文化产业园) 설립 등을 제시함.
- 샤먼(厦门)은 하이시아시안 경제구의 빠른 건설을 위하여 대만의 선진제조업, 금융보험업, 물류업, 문화 산업 등 10대 산업의 제후를 계획했다고 밝힘.
- 샤먼은 대만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고 양안교류와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으로 대만기업의 공업생산액이 샤먼의 공업생산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푸젠성 치엔저우대만상인투자구(泉州台商投资区)²⁶⁾ 신설과 푸젠성 외에 양안경제교류가 밀접한 저난(浙南), 위에둥(粤东), 간둥난(赣东南)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푸젠성 대만관공실 부주임 우귀성(吴国盛)은 민남문화, 하카문화 등 하이시아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보호개발하고 전승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양안교류의 플랫폼을 확대하여 푸젠이 양안 문화교류의 기지가 될 것이라고 함.

□ 하이시아시안 경제구 건설에 있어 푸젠과 대만의 산업제후가 가장 중요

25) 관세영역 내의 일반 지역과 구분하여 특수정책을 실시하는 구역으로 세관에서 특별 감독 관리하며 보세구(保税区), 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 보세물류원구(保税物流园区), 보세항구(保税港区), 다국적공업원(跨境工业园), 종합보세구(综合保税区)가 있음.

26) 재중국 대만동포 80% 이상의 원적지가 푸젠성이며, 그 중 40% 이상의 원적지가 치엔저우임.

- 푸젠성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소장 우닝웬(吴能远)은 양안의 특색산업은 제조업으로 제조업 간 제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
- 동썩(东兴)증권연구소 소장 인귀홍(银国宏)은 대만의 협소한 시장과 원가 요인으로 대만의 광전기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싰따루(新大陆)과학기술그룹 총재 왕징(王晶)은 하이시가 대만전자정보산업 이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주혁신기술을 가진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전자정보 산업의 집적지를 신속히 건설할 것을 주장
- 푸젠은 샤먼 LED 산업 기지²⁷⁾를 기초로 푸젠과 대만의 PV전자와 LED산업 제휴를 강화하고, 샤먼·푸저우 액정표시장치산업화 기지²⁸⁾를 기초로 푸젠과 대만의 컬러 액정표시장치 산업제휴를 추진할 것이라고 함.
- 전 푸젠성 사회과학원 원장 안쥘(严正)은 푸젠과 대만의 해상직항 운행²⁹⁾으로 사업제휴가 유리해졌고, 특히 대만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대만기업은 시간과 운송비가 절감되었다고 함.

마. 장쑤(江苏)

- “장쑤 연해지역 발전 계획(이하 ‘계획’)”의 통과로 장쑤는 중국 동부지역의 중요한 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2월 ‘계획’ 초고가 완성된 이래, 2007년 4월 성 정부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20개의 부서가 ‘계획’의 편집 작업을 시작함.
- 장쑤 연해지역의 신속한 발전은 △창장삼각주 지역의 산업 고도화와 전체경쟁력 향상, △ 연해지역 전체의 생산력 분배, △중서부 지역 발전 촉진, △중국과 중앙아시아·유

27) 厦门现代半导体照明产业基地

28) 厦门、福州液晶显示器产业化基地

29) 2008년 말, 푸젠을 시범시행구로 하여 중국과 대만 간 해상직항이 개통되기 시작

립·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 등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 장쑤 연해지역 발전계획 중 연해개발의 주요 내용은 지역성(区域性) 국제해운센터 건설, 신에너지와 임항(臨港)산업기지 건설, 농업과 해양특색산업기지 건설, 관광 및 생태기능구 건설 등으로 알려짐.

- 장쑤는 향후 10년간 약 3조 위안을 투자하여 신에너지, 해양특색산업, 현대물류업, 임항 대형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4대 연해 산업대(产业带)³⁰⁾ 건설할 계획임.

□ 국무원 상무회의(6.10)에서는 신아시아-유럽 대륙교(新亚欧大陆桥)의 동방(东方)교두보 건설과 해역 간석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종합교통허브·연해 신흥공업기지·자원개발구 및 아름다운 생태환경·풍요로운 국민 생활 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함.

- 도시, 농촌과 생태 공간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연해항구군(群), 수리, 교통과 에너지 전력망 등 중요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

-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 선진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산업의 발전, 해역 간석지 자원 개발 강화,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 도농일체화 등을 추진

□ 이번 ‘계획’으로 장쑤 연해도시 중 렌윈강(连云港), 엔청(盐城), 난통(南通)³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 1984년, 렌윈강은 첫 번째 대외개방의 14개 연해항구 도시 중 하나였으나 지난 25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방의 자금 부족과 기계설비 및 장비의 미흡 때문임.

30) 산업대는 지역경제 발전의 독특한 특징으로 산업대 형성 초기에 기업이 그 지역의 환경조건(예: 제도, 정책, 자원 등)의 영향을 받아 일정 지역에 집중된 뒤, 몇 개의 도시 공업집중구로 발전하게 되어 형성됨.

31) 렌윈강, 엔청, 난통 3개 도시의 육지해안선 길이는 954km이며, 면적과 인구는 각각 장쑤성의 20% 이상과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GDP와 재정수입은 모두 20% 이하임.

- 렌윈강 항구관리국 국장 덩권화(丁军华)는 미공개된 계획에는 중앙정부가 렌윈강에 재정금융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중앙정부가 렌윈강 항구와 부두 설비·서비스 기능·기초 인프라 등을 개선하여 기계설비 및 장비 미흡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렌윈강 항구에 철강·석유화학 등 대형 임항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렌윈강 남부 경제개혁 혁신발전의 시범구 건설에 대해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연구 중에 있다고 함.
- 이밖에 난통시는 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현대 국제항구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종합 서비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강·바다 연동개발 중 중심도시의 중추기능을 강화할 방침임.
- 엔청시는 녹색에너지 발전, 녹색공업 창설, 녹색식품 생산, 녹색풍경 건설, 녹색에너지기지·녹색 공업기지·해양식품가공기지와 연해생태관광인 녹색도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음.

<참고자료>

- 《财经网》, “上海两个中心细则出台”, 2009.4.29
- 《证券时报》, “国务院发布上海两个中心建设意见”, 2009.4.30
- 《中新社》, “国务院赋予海峡西岸经济区对台先行先试政策”, 2009.5.15
- 《21世纪经济报道》, “深圳综改方案获批明确深港五大中心”, 2009.5.14
- 《新华网》, “深圳市综合配套改革总体方案获国务院批准”, 2009.5.26
- 《第一财经日报》, “2020年赶超韩国珠三角三大经济圈竞合一体化”, 2009.4.14
- , “深圳综改方案发布 深港共建四大中心”, 2009.5.27
- , “国务院常务会议原则通过江苏沿海地区发展规划”, 2009.6.11
- , “横琴岛纳入珠海特区 探索粤港澳合作新模式”, 2009.6.25
- 《人民网》, “六人冷班子成立新浦东起航”, 2009.6.8
- 《世纪经济报道》, “江苏修复东部黄金海岸线瞄准重化工新能源”, 2009.6.12
- 《中国经济时报》, “以珠串线, 沿海三成互动发展”, 2009.6.24
- 《新华社》, “海西经济区: 新坐标上打造两岸交流合作先行区”, 2009.6.27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